

## 제1·2차 만주 페페스트의 유행과 일제의 방역행정(1910-1921)

신규환\*

1. 머리말
2. 제1차 만주 페페스트의 유행과 쥐잡기운동
3. 방역법령의 정비와 1919-20년 콜레라방역의 성과
4. 제2차 만주 페페스트의 유행과 페페스트 인식의 변화
5. 맺음말

### 1. 머리말

1910~11년 만주(滿洲)에서 페스트 유행과 방역활동은 중국의학사 및 보건의료사의 근대적 전환점으로 일컬어지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Seon Hsiang-lin Lei, 2010: 73). 동시기 한국에서 페스트 환자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페스트 방역문제는 식민지 근대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박윤재는 일제가 페스트 방역활동을 통해 강제성을 동원하기는 하였지만, 방역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제의 지배정책에 조선인들을 순응케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일련의 페스트 방역 활동의 결과 조선에는 단 한 명의 페스트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박윤재, 2000). 이에 대해 신규환은 일제 식민당국의 페스트 통제는 식민공간을 훈육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목적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및 의학사연구소

주소: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전화: 02-2228-2474 / 이메일: jerryq@yuhs.ac

© 대한의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에서 쥐잡기운동과 같은 사태의 본질을 벗어난 선전선동에 열중하고 있었고, 시기적으로 그 대처는 매우 미흡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만주에서 페페스트 확산의 주범이었던 중국노동자의 귀향 노선에 조선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당국은 만주로부터 불어오는 페스트의 공포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제1차 만주 페페스트 유행에서 조선이 별다른 인적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식민당국의 철저한 방역으로 인한 필연적인 성공이 아니라 페스트의 전염병원이 조선으로 유입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성공이었다(Sihn Kyu-hwan, 2009).

한국전염병사 연구에서 일제의 페스트 방역의 성과에 관한 박윤재와 신규환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근대보건의료체제 성립사에서 페스트 방역의 의미에 대한 심화된 논의는 많지 않았다. 대규모 사망자를 발생시킨 콜레라 방역에는 적지 않은 연구가 집중되었지만,<sup>1)</sup> 공식적으로 페스트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던 탓에,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페스트 방역의 중요성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콜레라가 설사 및 탈수 증세와 같은 비교적 명확한 증세를 보이고 끓인 물 마시기, 예방주사, 격리 등을 통해 예방적 조치를 실행할 수 있었지만, 페스트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격리조치를 필요로 하는데다 격리 이외에는 별다른 방역조치가 없었다. 페스트 방역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방역조치가 필요했다. 콜레라 방역이 한말 및 대한제국시기의 적극적인 전염병관리와 일제시기의 전염병관리를 대표한다면, 페스트 방역은 1910년 및 1920년 전후 일제의 전염병 관리의 성격과 방역체계의 발전과정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전염병이라 평가할 수 있다.

만주에서 페스트는 1910~11년 6만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이후에도 거의 매년 발생하였다.<sup>2)</sup> 특히 만주지역에서는 1917~18년 선페스트, 1920~21년 페페스트가 크게 유행하였고, 중국에서만 각각 1만 6천, 9천여 명의 사망자를

1) 한말 대한제국시기의 콜레라 방역에 대해서는 신동원(1997); 박윤재(2005), 일제의 콜레라 방역에 대해서는 정민재(2006), Park Yun-jae(2010), 백선례(2011), 金穎穗(2012) 등을 참고.

2) 關東都督部臨時防疫部(1912)의 공식통계상 페스트 사망자 수는 43,972명인데, 飯島涉(2000)은 5만여 명, Wu Lien-teh(1959), Nathan(1967), 焦潤明(2011) 등은 6만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발생시켰다(Wu Lien-teh, 1922: 25). 일반적으로 1910~11년 만주에서 유행한 페스트를 제1차 만주 폐페스트, 1920~21년에 유행한 페스트를 제2차 만주 폐페스트라고 부르고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제1차 만주 폐페스트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2차 만주 폐페스트 발생으로 조선 최초로 페스트 사망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만주에서 페스트 유행과 식민지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는 주로 제1차 만주 폐페스트만이 다루어져왔으며, 제2차 만주 폐페스트는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본고는 제1차 만주 폐페스트 유행 이후 10년 동안 일제의 방역행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제2차 만주 폐페스트 유행이 일제의 방역 체계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제1차 만주 폐페스트의 유행과 쥐잡기운동

1910년 9월 16일, 러시아 지역 국경 부근에서 일하던 중국인 목수들 중에서 최초의 환자가 목격된 이래로 열악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서 집단 거주했던 노동자 및 수렵꾼 사이에서 페스트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0월에는 흑룡강성 만주리(滿洲里)로 확산되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만주리에서 392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페스트는 만주리에서 하얼빈, 장춘, 길림 등 철도연선을 따라 각지로 퍼져나갔다. 페스트가 남쪽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던 것은 겨울이 되자, 산동쿨리들이 철도를 통해 귀향길에 오르면서부터였다. 페스트는 북경, 천진, 제남 등지로까지 확대되었다. 중국정부는 1910년 12월 경사방역국(京師防疫局)의 설치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 방역국을 설치하여 방역 행정을 본격화하였다. 만주 페스트 방역의 총책임자로는 영국 캠브리지대학 의학박사로 천진 제국육군군의학당(天津帝國陸軍軍醫學堂) 부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던 우렌더(伍連德: 1879~1960)가 임명되었다.

중국 동북부에서 페스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1910년 10월 일제가 조

선을 강제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해졌다. 1910년 11월 경무총감부는 각 도에 예방경계령을 발령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sup>3)</sup>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검역 관련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고, 한반도 내에서 특별한 검역도 실시되지 않았다.

「전염병예방규칙」(1899. 8. 16)에 따르면, 대한제국시기 법정전염병은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두창, 발진티푸스, 디프테리아 등 6종이었다. 「전염병 보고례」(1910. 8. 16)에 따르면, 기존 6종 이외에 성홍열과 페스트가 포함되었다.<sup>4)</sup> 1910년 9월 1일, 전염병 발생시 지방 관찰사와 지방 경찰서 등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콜레라와 페스트는 내부 위생국과 경찰부장에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sup>5)</sup> 그러나 페스트를 위한 특별한 법령은 반포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가 페스트와 관련한 법령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은 1911년 1월 중순이후였다. 본격적인 검역도 법령 반포이후에 시작되었다.

1911년 1월 14일 신의주 세관에서 페스트 검역이 시작되었다.<sup>6)</sup> 1월 15일, 경무총감부는 중국인은 10일간의 검역을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의주에서 실제 검역은 3일간 실시되었다.<sup>7)</sup> 1월 19일부터는 신의주와 인천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는 격리소에 3일간 격리되도록 했다.<sup>8)</sup> 1월 23일에는 원산에서 페스트 검역이 실시되었고,<sup>9)</sup> 1월 24일부터는 평양역에서 기차검역이 실시되었다.<sup>10)</sup> 1월 27일부터는 신의주, 진남포, 인천, 부산 등에서 항만검역이 실시되었다.<sup>11)</sup> 만주에서 군산이나 목포로 내항한 선박은 인천 등지에서 검역

3) 「滿洲의 黑死病과 朝鮮」, 『每日申報』(1910. 11. 20), 2면.

4) 「傳染病報告例」(1910. 8. 16), 『警務月報』2, (1910. 8), 例規, pp.12-13.

5) 「咸鏡南道警察部訓令第2號」, 『朝鮮總督府官報』(1910. 9. 1), p.2.

6)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告示第5號」(1911. 1. 12), 『朝鮮總督府官報』(1911. 1. 14), p.71.

7) 「新義州防疫嚴密」, 『每日申報』(1911. 1. 24), 2면.

8)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令第2號」(1911. 1. 19), 『朝鮮總督府官報』(1911. 1. 19), p.1;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告示第7號」(1911. 1. 19), 『朝鮮總督府官報』(1911. 1. 19), p.1.

9) 「朝鮮總督府告示第13號」(1911. 1. 23), 『朝鮮總督府官報』(1911. 1. 23), p.110.

10)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告示第9號」(1911. 1. 23), 『朝鮮總督府官報』(1911. 1. 24), p.1.

11) 「總督府公文」, 『每日申報』(1911. 1. 29), 1면.

을 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했다.<sup>12)</sup> 1월 27일에는 신의주 및 인천 격리소의 격리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였다.<sup>13)</sup> 2월 1일부터는 두만강 연안에서도 검역이 시작되었다.<sup>14)</sup>

1월 14일부터 2주 동안 신의주에서 검역 성과는 일본인 1,029명, 조선인 521명, 중국인 778명, 기타 외국인 1명 등이었고, 격리소에 수용된 인원은 일본인 128명, 조선인 20명, 중국인 20명인데, 페스트 감염 의심자는 1명도 없었다. 1월 21일부터는 중국인의 상륙을 금지시켰다.<sup>15)</sup>

항만 검역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규정은 「해항검역에 관한 건」(1911. 1. 21)으로 전염병 유행지에서 출발했거나 경유한 선박이 전염병의 오염 의심이 있을 경우 정선(停船)을 명하고 소독 및 취의 구제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 및 승무원을 검역소나 선박 안에 정류(停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검역관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200원 이하의 벌금을, 선장이나 승무원이 검역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5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sup>16)</sup>

「해항검역수속」(1911. 1. 24)은 검역을 시행할 수 있는 전염병으로 콜레라, 성홍열, 페스트, 황열 등을 우선 지정하였다(제1조). 기타 전염병에 대해서는 “임시검역을 시행할 때 다시 그것을 지정할 수 있다(제1조)”고 하였고, “승객 및 승무원의 정류기간은 페스트는 10일간, 콜레라, 황열은 5일간으로 한다(제3조)”고 하였다.<sup>17)</sup>

페스트 만연으로 중국과 접경지역에서 방역을 담당할 경비선이 요청되었다. 경찰에서는 1911년 1월 이래 수차례에 걸쳐 육군 소속 기선 5척을 빌리고, 휘발유 발동선 5척을 구입하여 항만과 하천에서 방역을 담당케 하였다.<sup>18)</sup> 이

12) 「朝鮮總督府告示第22號」(1911. 1. 27), 『朝鮮總督府官報』(1911. 1. 27), p.1.

13)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告示第13號」(1911. 1. 27), 『朝鮮總督府官報』(1911. 1. 27), p.1.

14)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告示第16號」(1911. 2. 1), 『朝鮮總督府官報』(1921. 2. 1), p.1.

15) 「新義州의 檢疫數」, 『每日申報』(1911. 2. 7), 2면.

16) 「海港檢疫ニ關スル件」(1911. 1. 21), 『朝鮮總督府官報』(1911. 1. 21), p.1.

17) 「海港檢疫手續」(1911. 1. 24), 『朝鮮總督府官報』(1911. 1. 24), p.1.

18) 「水上警備」, 『朝鮮彙報』12, 1915, p.129; 「防疫警備船派遣」, 『每日申報』(1911. 2. 15).

렇게 마련된 경비선이 일제시기 수상경찰의 기초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sup>19)</sup> 페스트 방역을 계기로 항구 및 하안 등지에서 방역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행정수단이 마련되었다.

육상 및 해상 검역 이외에, 식민당국이 심혈을 기울인 방역대책은 쥐잡기 운동이었다. 쥐잡기를 통해 페스트 예방 교육과 선전을 강화하였으며, 세균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 포획자에 포상하였다. 만주에서 유행한 페스트는 페페스트였지만, 의과학자 사이에서 페페스트의 원인과 감염경로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sup>20)</sup> 당시 페스트라고 하면 선페스트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페스트 주요 방역대책 중의 하나는 선페스트의 매개체인 쥐벼룩과 쥐를 잡는 것이었다.

1월 14일 신의주에서 본격적인 검역과 더불어 경무총감부가 내린 법령 역시 “페스트 예방을 위해 특히 지정된 지역 내에 죽은 쥐(斃鼠)를 발견할 때 속히 관찰경찰서 혹은 순사주재소 혹은 순사파출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구류 혹은 벌금에 처하였다.<sup>21)</sup> 신고 지정 지역은 평안북도 신의주와 경기도 인천항으로 하였다.<sup>22)</sup> 그러나 페스트 유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후쿠오카, 야마구치 등에서 콜레라가 종식됨에 따라 인천의 검역은 같은 날 폐지되었다.<sup>23)</sup> 1월 16일 경무총감부는 장춘, 봉천, 대련 등지의 페스트 만연 상황을 알리고, 쥐잡기, 청결관리 등 방역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대책은 쥐잡기와 쥐매입이었다.

페스트병은 흔히 鼠族의 매개로 인하여 병독이 전파하는 것인  
즉 各戶에 쥐덫[捕鼠器]를 비치하거나 또는 쥐약[捕鼠劑]를 사용하

19) 『朝鮮警察之概要』(朝鮮總督府警務局, 1914), p.8.

20) 1910~11년 만주에서 유행한 페페스트에 관한 이론적 논쟁에 대해서는 신규환, 「제국의 과학과 동아시아의 정치: 20세기초 만주 페페스트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문화사학회 2013년 겨울 학술대회: 과학, 기술, 문화, 제국주의, (중앙대, 2013. 2. 15-1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1)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令第1號』(1911. 1. 14), 『朝鮮總督府官報』(1911. 1. 14), p.70.

22)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告示第6號』(1911. 1. 14), 『朝鮮總督府官報』(1911. 1. 14), p.71.

23) 『朝鮮總督府京畿道警務部告示第1號』(1911. 1. 14), 『朝鮮總督府官報』(1911. 1. 14), p.85.

거나 혹은 고양이를 사육하는 등 수단을 써서 驅鼠를 이행하고 더  
불어 버룩, 빈대, 이 등이라도 驅除함을 힘써할 일<sup>24)</sup>

1911년 1월 14일, 경무총감부는 쥐덫[捕鼠器]을 설치하여 쥐잡기를 실시한  
다는 포고를 전국에 발표하였다.<sup>25)</sup> 특히 신의주와 인천에서는 쥐를 매입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sup>26)</sup> 경성 북부경찰서에서도 쥐잡기를 통해 페스트  
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교육과 선전을 강화하여 쥐잡기에 전력하도록 고무하였  
다.<sup>27)</sup> 쥐잡기를 고무하기 위해 경무총감부는 쥐덫을 직접 판매하였는데, 왕가  
에서 쥐덫 350개를 구입하여 창덕궁에 200개, 덕수궁에 150개를 비치하였다  
는 점을 선전하기도 하였고, 다수 포획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포상한다는 계  
획도 발표하였다.<sup>28)</sup> 실제로 2월 1일부터는 경성내 경찰서를 중심으로 쥐잡기  
운동을 본격화하여 6일 동안 7,900마리의 쥐를 포획했다.<sup>29)</sup>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누계 15,253마리를 포획했으며, 2월 12일 포획자에 대한 포상 추첨  
을 실시하였다.<sup>30)</sup> 그밖에도 방역당국은 페스트 방역을 목적으로 부산항에서  
도 매일 200~300마리의 쥐를 사들이기도 했다.<sup>31)</sup> 용암포 경찰서는 1마리당 3  
전씩 매입하였고,<sup>32)</sup> 평안북도 경찰부는 2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1,000마리  
의 쥐를 매입하였으며,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 1등에게는 20원의 상금을 수여  
하기도 했다.<sup>33)</sup> 신의주와 인천에서 세균검사가 실시되었으며,<sup>34)</sup> 경무총감부  
위생과에 세균검사실을 설치하고 2월 25일 오카다 소지로(岡田宗次郎), 다카

24)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告諭第1號」(1911. 1. 14), 『朝鮮總督府官報』(1911. 1. 18), p.3.

25) 「黑死病과 諭達」, 『每日申報』(1911. 1. 15), 2면.

26) 「因疫檢鼠」, 『每日申報』(1911. 1. 15), 2면.

27) 「鈴木署長の 諭示」, 『每日申報』(1911. 1. 26), 2면.

28) 「兩宮의 捕鼠獎勵」, 『每日申報』(1911. 1. 27), 2면.

29) 「買鼠의 好成績」, 『每日申報』(1911. 2. 10), 2면.

30) 「捕鼠一萬五千餘(12일 오후 1시 추첨)」, 『每日申報』(1911. 2. 14), 3면.

31) 「釜山港의 買鼠數」, 『每日申報』(1911. 2. 17), 2면.

32) 「朝鮮總督府平安北道警察部告示第9號」(1911. 3. 29), 『朝鮮總督府官報』(1911. 4. 5), p.24.

33) 「朝鮮總督府平安北道警察部告示第17號」(1911. 4. 27), 『朝鮮總督府官報』(1911. 5. 4), p.25.

34) 「朝鮮總督府京畿道諭告第1號」(1911. 1. 18), 『朝鮮總督府官報』(1911. 1. 21), p.1.



노 치카오(高野親雄) 등을 세균검사 기사로 임명하였다.<sup>35)</sup> 그러나 세균검사를 통해서 페스트균을 발견한 사례는 전무했다.

「전염병예방심득서」는 각 전염병의 원인과 예방법에 관한 주의서 혹은 안내서로 전염병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인쇄하여 주재소나 접객업소에서 배포하거나 전신주에 붙이는 형태로 대중에게 공표하여, 전염병 유행을 경각시키고 각 전염병을 선전·교육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따라서 「전염병예방심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방역당국의 전염병에 대한 인식과 방역정책을 유추해 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1911년 1월 말, 관동군 산하인 여순진수부 사령장관(旅順鎮守府司令長官)이 해군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에 첨부된 여순진수부 발행의 「페스트예방심득(ペスト豫防心得)」에 의하면, 당시 페스트의 유형을 선페스트, 피부페스트, 폐페스트 등으로 분류하면서 만주에서 유행하는 페스트가 폐페스트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폐페스트가 가래나 기침 등에 의해 공기로 전염될 수 있고, 환자의 의복이나 물품 등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반면 같은 문서에 첨부된 「예방법」에서는 페스트예방을 위해 쥐잡기를 중요한 방역대책으로 설정하였다.<sup>36)</sup>

식민지 조선에서는 「페스트예방심득서」를 대신하여 당시 방역행정을 주도하던 조선총독부의원 후지타 츠쿠아키라(藤田嗣章: 1854~1941)의 강연을 신문지상에 공표하였다.

페스트라는 것은 즉 인간과 쥐가 여러 곳에 병독을 옮긴다는 것은 이미 확실하게 증명되었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과 쥐가 있지 않게 된다면 시가지에 페스트 병균은 만연하지 않고 고사하게 된다. 거기에서 인간을 본위로 하면, 쥐가 전염의 매개를 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이 쥐를 전멸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이 페스트는 어떠한 경로로 전파되는 것인가? 인간과 쥐

35) 「敍任及辭令」, 『朝鮮總督府官報』(1911. 2. 25)

36) 「第87-2ペスト豫防の件」(1911. 1. 21), 『南滿洲ペスト一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 海軍省-公文備考-M44-92-1270, p.0231.



에만 한정하여 이를 다루고 있는데, 그 병독이 페스트 환자가 사용한 기구나 물건에 붙어서 모두 매개가 되는 것이고, 우선은 이들에 대한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예방 계획을 세우게 되면 쉽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sup>37)</sup>

후지타가 만주에서 발생한 페스트가 페페스트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후지타 역시도 관동군 방역당국의 페스트에 대한 인식을 일정정도 공유하고 있었다. 즉 페스트가 인간, 쥐, 환자와의 간접 접촉 등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지타에게도 가장 중요한 페스트 방역정책은 바로 쥐잡기를 통한 방역이었다.

이것은 1911년 1월에 이미 조선총독부에서도 제1차 만주 페페스트의 실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나 페페스트에 관한 논의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잡기는 남만주와 식민지 조선에서 여전히 중요한 정책이었다는 점도 상기시켜 준다.

대한제국의 방역대책이 지방관의 관할 하에 경찰, 의사 등을 동반하되, 지방행정의 말단인 리임(里任)과 동임(洞任) 등을 활용한 것이었다면, 통감부는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사무는 경찰관서에서 집행하고, 관련비용은 각 지방 관찰사가 담당하되, 경찰관서는 필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38)</sup> 조선총독부의 위생사무는 내무부 지방국 위생과와 경무총감부 위생과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1912년 4월 내무부 위생과가 폐지되고, 총독부의원 및 자혜의원 관련업무만이 내무부 지방국에서 관할하도록 하였다.<sup>39)</sup> 말하자면, 한국병합 이후 방역사무의 실질적인 책임은 경무총감부가 담당하였다. 경무총감은 조선주차헌병대장이 겸임하였고, 검역 및 방역활동을 위해서 경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경찰력은 헌병에서 차출되었다. 페스트

37) 「藤田院長の講演(1): ペスト豫防心得」, 『京城新報』(1910. 2. 5), 2면.

38) 「地方衛生事務協定の件(1910. 7. 27)」, 『警務月報』2, (1910. 8), 例規, p.9.

39)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朝鮮總督府訓令第27號)」(1912. 3. 30), 『朝鮮總督府官報』第475號, (1912. 3. 30), pp.262-265.

방역을 위해 민간에서 조직된 방역자위단(防疫自衛團) 역시 자율적인 민간 조직이라기보다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었다(Sihn Kyu-hwan, 2009:177). 방역자위단은 방역활동 이외에 지역사회의 치안유지 활동을 겸하고 있었는데, 당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관민 협동기구로 위생조합도 등장하였다(권기하, 2010: 32-33).

방역행정은 경무총감부가 담당하였고, 경무총감부는 페스트환자의 격리기간을 3일, 5일, 10일 등 임의대로 정하는 등 방역정책이 그 때 그 때 달랐다. 특히 경무총감부는 제1차 만주 폐페스트를 선페스트로 간주하여 방역대책으로 구서작업에 몰두하였다. 경무총감부는 수십 건의 법령의 반포를 통하여 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갔지만, 사실 그 대책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조선총독부가 페스트 방역을 더 이상 경무총감부 관할로 두지 않고, 사실상 만주 폐페스트가 종결되는 시점인 1911년 3월에 총독이 임명하는 임시방역위원회(臨時防疫委員會)가 담당하도록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sup>40)</sup>

제1차 만주 폐페스트에 대한 식민당국의 대처는 페스트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군경을 활용한 강권적인 검역 및 민간의 방역자위단을 활용한 방역활동으로 정리된다. 실질적인 검역기간도 3일정도로 짧았고, 당국은 쥐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세계적 세균학자인 기타사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郎: 1853~1931)가 조선을 방문하여 페스트의 전염원으로 중국인노동자에 주목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쥐잡기 중심의 방역행정은 변경되지 않았다.<sup>4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당국이 페스트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방역대책 때문이 아니라 페스트의 주요 전염원이었던 중국인노동자의 조선 유입이 적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Sihn Kyu-hwan, 2009).

40) 「朝鮮總督府臨時防疫委員會規則」(1911. 3. 13), 「朝鮮總督府官報」(1911. 3. 13), p.101. 실제로 임시방역위원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페스트는 잦아 들었고, 경무총감부는 콜레라 유행에 대비하여 활동을 재개하였다.

41) 「北里博士의 講話(京城호텔 歡迎會席上)」, 『每日申報』(1911. 2. 28), 3면.

### 3. 방역법령의 정비와 1919-20년 콜레라방역의 성과

대한제국시기「전염병예방규칙」(1899. 8. 16)은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두창, 발진티푸스, 디프테리아 등 6종을 법정전염병으로 정하였고, 1910년 8월에「전염병보고례」(1910. 8. 16)는 기존 6종에 성홍열과 페스트를 추가하였다. 「전염병보고례」의 제정 이전에 조선에서 성홍열과 페스트가 유행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성홍열과 페스트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었다.<sup>42)</sup> 조선의 법정전염병에 페스트가 포함된 것은 일본의 상황에 근거한 것이었다. 「전염병보고례」는 법령으로 정식 공포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전염병을 통제하던 경찰조직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령과 같은 효력을 지녔다.

「전염병예방령」(1915. 6. 5)은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두창, 발진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페스트 등 9종을 법정전염병으로 정하였다. 기존 8종에 파라티푸스가 포함된 것이었다. 이 역시 1910년대 일본에서 급증한 파라티푸스 유행과 관련된 것이다.<sup>43)</sup> 「전염병예방령」의 특징은 각 지방 경무부장 책임하에 전염병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사체검안 및 소독 등은 경찰, 헌병 등의 관리를 받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전염병 관리는 경찰에 의한 일원적 관리를 목표로 하였다.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1915. 7. 12)은 전염병예방령의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는데, 전염병 유행시 각 지방 경무부장은 경무총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도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제1조). 특히 페스트 유행시에는 쥐의 구제를 우선적인 시행업무로 삼았다(제4조). 또 콜레라, 이질 환자의 격리기간을 5일, 발진티푸스, 성홍열 환자의 격리기간을 7일로 했던 것에 비해 페스

42) 內務省衛生局, 『法定傳染病統計』(1924), 第一表, 「累計傳染病患者及死亡總數」를 참고.

43) 일본내무성이 파라티푸스를 주요한 전염병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부터이고, 매년 200~800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전염병환자의 사망통계는 『法定傳染病統計』(1924)를 참고. 일본은 1897년 「傳染病豫防法」에서 두창,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성홍열, 페스트 등 8종을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하였고, 1922년 개정을 통해 파라티푸스와 유행성뇌척수막염이 추가되었다.

트 환자는 격리기간을 10일로 정하였다(제6조).<sup>44)</sup>

1919년 지방제도 개편을 통해 도 경무부장이 가졌던 위생관련 처리권한이 도지사에게 이관되었다. 그 동안 위생을 포함한 경찰사무를 총괄하던 경무총감부가 해체되면서, 위생사무와 관련한 도지사의 개입여지가 확보되었다(박윤재, 2009: 165). 1919년 4월, 도 경무부장은 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府)·면(面)에 각종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방역설비를 갖추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부·면의 지방비로 처리하도록 하였다.<sup>45)</sup> 다만 중앙정부는 전염병예방비와 관련하여 부에는 지출액의 1/5, 면에는 지출액의 1/3을 보조하도록 하였다.<sup>46)</sup> 1919년 9월 11일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경무부장 책임이 도지사로 이관되면서 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헌병의 역할은 삭제되었다.<sup>47)</sup> 각 지방에서는 도지사가 관할하는 검역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검역위원 본부는 도청 소재지에 설치하고, 주요 경찰서를 검역위원 지부로 하여 검역활동을 관리하기도 했다.<sup>48)</sup> 이는 검역활동이 지방 중심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경찰행정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각종 전염병 보고 및 사체검안 등을 경찰관리 혹은 검역위원에게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경찰 중심이었음을 나타낸다. 콜레라 예방을 명분으로 어로와 수영이 금지되었고, 각종 집회도 금지될 수 있었다.<sup>49)</sup>

1919년 이후 식민지 방역활동에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동아시아 전염병 정보체계의 변화였다. 『조선총독부관보』는 1919년 1월부터 매 주 단위로 전염병 정보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만주리 및 하얼빈 등 북만주, 장춘 및 대련 등 남만주(관동도독부 경무부), 블라디보스톡(浦潮斯德 총영사관), 청도(청도수비군 민정부경무부), 상하이(내무성 방역사무촉탁), 홍콩(홍콩주재

44) 「傳染病豫防令施行規則」(1915. 7. 12), 『朝鮮總督府官報』(1919. 7. 12), p.133.

45) 「朝鮮總督府令第61號」(1919. 4. 8), 『朝鮮總督府官報』(1919. 4. 8), p.109.

46) 「傳染病豫防費補助規定」(1919. 9. 27), 『朝鮮總督府官報』(1919. 10. 8), p.87.

47) 「朝鮮總督府令第143號」(1919. 9. 11), 『朝鮮總督府官報』(1919. 9. 11), p.113.

48) 「朝鮮總督府咸鏡南道訓令第18號」(1919. 9. 15), 『朝鮮總督府官報』(1919. 9. 26), p.302; 「朝鮮總督府忠清北道告示第36號」(1920. 8. 20), 『朝鮮總督府官報』(1920. 9. 2), p.21.

49) 「朝鮮總督府京畿道令第8號」(1919. 9. 5), 『朝鮮總督府官報』(1919. 9. 15), p.157.

충영사) 등지에서 유행하는 법정전염병이 그 대상이었다.

특히 홍콩지역에서는 1919년 1월부터 8월말까지 페스트 신규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였고, 홍콩 및 구룡 지역에서 쥐를 포획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쥐들이 페스트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다.<sup>50)</sup> 8월말부터는 홍콩의 콜레라 환자에 관한 전염병정보가 보고되었다.<sup>51)</sup>

1919년 8월 2일, 「경무총감부공문」을 통해 남중국에서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으며, 콜레라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sup>52)</sup> 8월 21일 콜레라 유행에 대비하여 신의주, 용암포 등지에서 만주지역에서 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였다.<sup>53)</sup> 8월 28일에는 신의주 이외에 평안남도, 황해도,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전국에 걸쳐 선박 검역이 실시되었다.<sup>54)</sup> 8월 한 달 동안 940명의 환자와 6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의 84%(537명)가 평안북도에 집중되었다.<sup>55)</sup> 9월이 되자, 충청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등지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sup>56)</sup> 이것은 콜레라가 만주를 통해 한반도로 유입되었음을 나타낸다. 1919년 식민지 조선에서 콜레라 환자 수는 16,991명, 사망자는 11,084명이었다.<sup>57)</sup>

1919년 콜레라의 유행은 신의주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신

50) 「傳染病週報」(1919. 8. 23), 『朝鮮總督府官報』(1919. 8. 23), p.257.

51) 「香港傳染病週報」(1919. 8. 28), 『朝鮮總督府官報』(1919. 8. 28), p.319.

52) 「警務總監部公文」(1919. 8. 1), 『朝鮮總督府官報』(1919. 8. 2), p.17.

53) 「朝鮮總督府告示第216號」(1919. 8. 21), 『朝鮮總督府官報』(1919. 8. 21), p.223.

54) 「朝鮮總督府告示第218號」(1919. 8. 28), 『朝鮮總督府官報』(1919. 8. 28), p.305.

55) 전체 환자 및 사망자는 940명/639명이었고, 평안북도(772명/537명), 평안남도(137명/85명), 황해도(26명/16명), 경기도(5명/1명) 순이었다. 「傳染病患者數」, 『朝鮮總督府官報』(1919. 10. 25), p.299.

56) 전체 사망자 5,351명 중 평안북도 1,767명(33%), 평안남도 1,510명(28.2%), 황해도 1,501명(28.1%) 등의 사망자가 전체의 89.3%를 차지하였다. 「傳染病患者數」, 『朝鮮總督府官報』(1919. 11. 3), p.31.

57) 1919년 콜레라 환자수 및 사망자수는 황해도(4,507명/3,101명), 평안남도(3,787명/2,405명), 평안북도(3,471명/2,246명) 순이었다. 朝鮮總督府, 『大正8年虎列刺病防疫誌』(京城: 朝鮮總督府, 1920. 3), pp.13-16. 이 통계는 「朝鮮防疫統計」와 약간 차이가 있다. 1919년 콜레라 환자수는 16,915명, 사망자수는 11,533명이었다. 朝鮮總督府警務局, 『朝鮮防疫統計』(朝鮮總督府警務局, 1941), p.10.

의주가 페스트뿐만 아니라 만주지역에서 유입되는 각종 전염병을 막아내야 하는 최전선이라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1920년 6월 일본 고베를 통해 경상남도로 유입된 콜레라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등지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도 콜레라가 유행하긴 했지만, 남부지역에서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고 피해도 컸다.<sup>58)</sup> 1920년 식민지 조선에서 콜레라 환자 수는 24,229명, 사망자는 13,570명이었다.<sup>59)</sup> 콜레라 검역은 페스트에 비해 검역기간이 짧았지만, 강제격리·교통차단·소독 이외에도 선박·기차·여객 검역시 검역대상자들에게 검변증명서와 예방주사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었고,<sup>60)</sup> 심지어 콜레라 확산을 이유로 집회도 금지할 수 있었다.

1919~1920년 콜레라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환자 발견 방법으로 해항, 기차, 여객검역보다 검병적 호구조사 즉 호구검역의 중요성이 증강되었다는 점이다. 1919년 콜레라 환자발견의 방법으로는 호구검역(58.13%), 타인신고(16.97%), 의사보고(12.74%), 환자가족의 신고(11.13%) 등이었으며, 해항, 기차, 여객검역 등은 모두 합쳐도 1% 미만에 불과했다.<sup>61)</sup> 1920년 진성콜레라 환자발견의 방법으로는 호구검역(67.19%), 자위단(7.33%), 의사보고(4.75%), 환자가족의 신고(3.75%), 밀고(3.71%), 사체검안(3.08%), 검변(3.04%)등이었다. 환자발견에 있어 호구검역의 중요성은 절대적이었다.<sup>62)</sup>

1919~1920년 콜레라 방역에서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로 지역중심형 방역사업과 방역자위단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방역자위단은 정부총감의 지시와 지

58) 「朝鮮總督府全羅南道諭告第2號」, 『朝鮮總督府官報』(1920. 8. 6), p.44.

59) 1920년 콜레라 환자수 및 사망자수는 전라남도(13,667명/6,419명), 경상남도(3,655명/2,373명), 경기도(2,636명/2,019명), 경상북도(1,650명/1,097명) 순이었다. 朝鮮總督府, 『大正9年コレラ病虎防疫誌』(京城: 朝鮮總督府, 1921. 4), pp.17-18. 『朝鮮防疫統計』의 1920년 콜레라 환자수는 24,229명, 사망자수는 13,568명이었다. 朝鮮總督府警務局, 『朝鮮防疫統計』(朝鮮總督府警務局, 1941), p.10.

60) 「朝鮮總督府令第114號」(1920. 8. 27), 『朝鮮總督府官報』(1920. 8. 27), p.290.

61) 朝鮮總督府, 『大正8年虎列刺病防疫誌』(京城: 朝鮮總督府, 1920. 3), pp.143-144.

62) 朝鮮總督府, 『大正9年コレラ病虎防疫誌』(京城: 朝鮮總督府, 1921. 4), pp.89-92.

방유지 등 민간의 움직임이 결합되어 조직된 것으로 방역인원의 부족과 전염병 예방 설비를 위한 재원 부족 등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였다. 방역자위단의 활동은 예방심독서의 배포, 청결활동 등 간단한 예방활동에서부터 환자발견, 소독, 예방주사, 교통차단, 차단구역내 구호활동, 사체화장, 연안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의 방역행정을 보조했다(金穎穗, 2012:22-24). 방역자위단은 제1차 페페스트 유행 당시에 이미 방역 및 치안유지에서 성과를 보인 조직으로 전염병이 크게 유행할 때에 지방민을 동원하기 위한 민간조직이었다. 콜레라나 페스트와 같은 급성전염병의 유행시에 호구검역과 더불어 방역 및 치안유지 활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 4. 제2차 만주 페페스트의 유행과 페페스트 인식의 변화

1920년 10월 만주리에서 117마일 떨어진 하일라(Hailar) 지역에서 철교를 지키는 헌병의 아내가 페스트에 감염되어 사망했다. 그녀의 가족들도 페스트에 감염되어 두 아들이 사망했고, 남편은 병원에서 회복되었다. 곧이어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3명의 중국군이 사망했고, 처음에는 선페스트라고 알려졌지만, 점차 페페스트 형태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12월 하일라의 페스트는 달라이너(Dalainor) 탄광으로 확대되었는데, 광부 4,000명 중 1,000명이상이 사망하였다. 달라이너에서 유행한 페스트는 만주리로 확산되어 1,141명이 사망하였고, 치치하얼에서 1,734명, 하얼빈에서 3,125명이 사망하였다. 2월 1일에는 하얼빈과 장춘 등지에서 기차승선이 금지되었으나, 페스트는 남으로는 천진(天津), 지불(芝罘)까지 확대되었고, 4월 9일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첫 환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제2차 만주 페페스트는 1921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종결될 수 있었으며, 사망자는 러시아인 600명을 포함하여 9,300명이었다(Wu Lien-teh, 1923: 262-265).

만주에서 발생한 제1차 만주 페페스트 방역의 관건이 중국인 쿨리들의 이



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있었다면, 제2차 만주 페페스트는 군벌전쟁 중에 갑작스럽게 증가된 중국인 군대의 망동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군인들은 기차검역을 방해하고 격리병원을 공격하는 등 방역조치에 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염원이 되어 페스트를 확산시켰다. 여러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러시아 당국 등의 협력으로 방역활동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Carl F. Nathan, 1967: 66-70).

만주지역에서 페스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식민지 조선에 전해진 것은 2개월여 지난 12월 16일이였다.<sup>63)</sup> 다음해인 1921년 2월 10일부터 신의주, 정주, 신안주, 평양 등에서 기차검역을 시작으로 실제 검역이 본격화되었다.<sup>64)</sup> 아울러 식민당국은 2월부터 5월까지 『조선총독부관보』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주지역의 페스트 사망 및 환자발생에 관한 방역정보를 자세히 공표하였다.<sup>65)</sup>

2월 24일, 만주 방역정보는 페스트 방역의 초점이 쥐잡기가 아니라 중국인 쿨리 노동자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66)</sup> 또, 3월 5일에는 장춘에서 사망한 환자가 페페스트 감염자였음을 확인하였고, 경무국 위생과는 페스트 환자들의 남하에 대비하여 신의주에 격리병사를 개축하였다.<sup>67)</sup> 3월 23일 방역당국은 페스트방역을 위해 직예성, 산둥성에서 온 중국인 쿨리에 대해서 5일 동안의 검역을 받도록 하였다.<sup>68)</sup> 4월 7일부터 신의주 경찰서 소속 의사 1명과 순사 2명을 안동현에 파견하여 기차 검역을 실시하였다. 검역은 중국인 노동자 전원에 대해 신의주역에 하차 후 5일 동안 격리소에서 검역을 받도록 하였다. 도보로 한반도로 진입하는 중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격리소에서 5일 동안 검역을 받도록 하였다. 격리소의 의심환자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만드

63) 「北滿地方의 흑사병 창궐」, 『朝鮮日報』(1920. 12. 16), 3면.

64) 「朝鮮總督府告示第17號」(1921. 2. 10), 『朝鮮總督府官報』(1921. 2. 10), p.125.

65) 1921년 2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만주 방역정보가 공표되었다.

66) 「滿洲ニ於ケル'ペスト'防疫狀況」, 『朝鮮總督府官報』(1921. 2. 24), p.297.

67) 「ペストの南下襲來に備へる爲め新義州の病舎改築」, 『朝鮮新報』(1921. 3. 5), 5면.

68) 「朝鮮總督府告示第53號」(1921. 3. 23), 『朝鮮總督府官報』(1921. 3. 23), p.229.

시 착용하도록 하였다.<sup>69)</sup> 5월 25일에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출발한 선박에 대해서 5일간의 검역을 시행하도록 했다.<sup>70)</sup> 이것은 1915년 7월 제정된 「전염병 예방령시행규칙」에서 페스트 검역을 10일 동안 받도록 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조치였다.

1918년 3월 상하이에서 페페스트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상하이 공공조계 공부국(工部局) 위생처가 공포한 「페페스트전단(The Prevention of Pneumonic Plague, 肺疫病傳單)」은 「페페스트 예방심득서」의 전형적인 내용을 잘 보여 준다. 페페스트의 감염경로와 대처방안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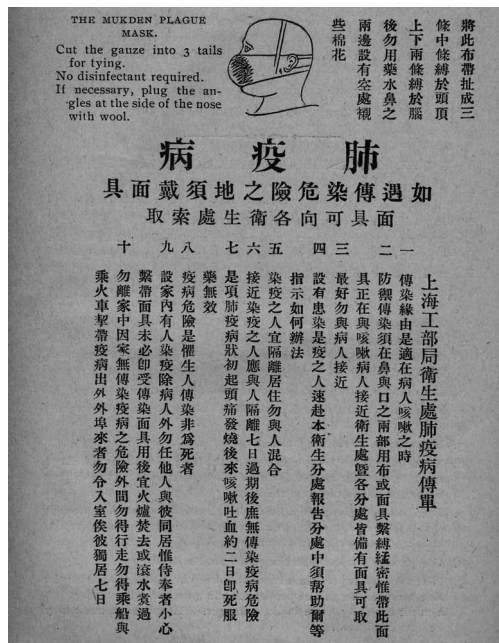


그림 1. 상하이 공부국 위생처가 발행한 「페페스트 예방심득서」(1918. 5): 상하이 공공조계는 페페스트 유행에 대비하여 페페스트 예방심득서를 영문과 중문으로 발행하였다. 총 10개 항목에 걸쳐 페페스트의 전염경로, 신고방법, 격리, 마스크 사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기침 감염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사용을 독려하였다.

69) 「北滿의 흑사병으로 열차에 검진 개시, 신의주역에 검역소를 개설하고 支那苦力은 일절 검진」, 『朝鮮日報』(1921. 4. 12), 3면.

70) 「朝鮮總督府告示第121號」(1921. 5. 25), 『朝鮮總督府官報』(1921. 5. 25), p.337.

은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전염은 기침을 통해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며(1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2항), 가능하면 환자에게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3항), 환자가 발생하면 위생처에 보고해야 하며(4항), 환자는 격리되어야 한다(5항). 격리된 환자는 7일 이상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6항). 초기에 두통과 발열을 보이고 기침과 객혈을 한 후 이틀 안에 사망하게 되며, 복약으로 치료되지 않는다(7항). 전염의 위협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온다(8항). 집안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를 돌봐야한다(9항). 환자가 발생하면 외부에 전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집을 떠나서는 안된다(10항).<sup>71)</sup> 특히 기침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그림과 사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반면 제2차 만주 페페스트 유행 초기에도 식민지 조선에서는 페스트라고 하면 여전히 선페스트로 인식하여, 쥐를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관이나 검역 위원에게 신고하도록 조치하였다.<sup>72)</sup> 1921년 3월에 발표된 「흑사병예방심서」는 제1차 만주 페페스트 유행시기의 페스트 인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흑사병의 병독 전파는 대개 벼룩, 빈대, 이 등들이 검구에 유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피부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침을 뱉어 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 거리가 약 사획 이상을 격하게 할 것이요. 종사원의 자위(自衛)는 환자와 및 병독이 있는 놈 품에 접촉하지 말고 예방의복을 길게 할 것이요. 소독검지하는 기계 피복을 소독하며 서족(鼠族)과 및 곤충을 쓸어버려 신변에 은닉하지 못하게 예방할 것이요. 종무원의 심득(心得)은 병이 있는 곳으로부터 무병한 사람이 오는 것은 기한을 10일간으로 하되 만약 오래될 때에는 일주일 이상은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살충하는 약을 뿌려 가는 균이라도 전부 살충하도록 시

71) "The Prevention of Pneumonic Plague", *The China Medical Journal* 31, (May 1918), no.3, pp.253-254.

72) 「慶尙南道令第47號」, 『朝鮮總督府官報』(1920. 10. 30).

행하며 만약 사망한 사람은 화장을 하도록 할 것이다.<sup>73)</sup>

「흑사병예방심득서」에서는 당시 의과학계에서 논의 중이던 모든 종류의 페스트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방조치를 강구하였다. 예컨대, 벼룩, 빈대, 이 등에 대한 언급은 선페스트를, 피부손상은 피부페스트를, 침을 뱉지 말하는 것은 페페스트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또, 10일간의 격리를 주장하였다. 「흑사병예방심득서」가 페페스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조점은 선페스트에 있었다.

이와 달리, 전형적인 「페페스트 예방심득서」가 식민지 조선에 등장한 것은 1921년 4월이었다. 식민당국은 제2차 만주 페페스트가 페페스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이 식민지 조선에서 유행할 가능성이 임박했음을 시사하였다.

흑사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바 가장 무서운 것은 페흑사병인데 지금 지나 북만주와 산동성과 직예성 방면에는 페흑사병이 크게 유행되어 사망하는 자가 무수한 중에 이 무서운 것이 장차 조선지방까지 미치려하는 염려가 없지 아니함도 지금 의주당국에서 대단히 주의하는 바이라. 그런데 페흑사병으로 말하면 가장 전염하는 힘이 강하고 항상 침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것이니 앓은 사람의 기침할 때에 입으로 나오는 침방울이 건강한 사람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서 전염되는 법이며 전염된 지 3일이면 머리가 심히 아프고 몸이 달아오르며 기침이 나고 가래침과 피를 토하고 호흡이 곤란하여 속히 죽는 자는 24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더 되 죽는 자는 48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무서운 병이니 심분 주의하여 되도록 유행하는 지방에 다니지 않기를 힘쓰며 유행하는 지방으로 오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주의하는 중에 더욱이 지나 노동자를 가까이 말며 사람 많이 모인 곳이나 또는 기차와 전차 속에서는 입과 코를 싸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주군에서는 일반에게 주의를 시키기에 매우 노력중이라더라(의주통신).<sup>74)</sup>

73) 「黒死病과 豫防心得書」, 『朝鮮日報』(1921. 3. 5), 3면.

74) 「흑사병 漸近과 의주, 무서운 흑사병은 남으로 접근하다, 국경 일반은 조심」, 『朝鮮日報』(1921. 4. 27), 3면.

「페페스트 예방심득서」는 전염경로, 증상, 마스크착용, 격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만주 페페스트가 페페스트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전염과 중국인노동자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식민당국은 여전히 페스트 방역을 위해서는 쥐잡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았지만, 제1차 만주 페페스트 유행시기처럼 더 이상 쥐잡기에만 몰두하지는 않았다.

1921년의 경우에는 중국 만주를 유행지로 지정하고, 신의주, 정주, 신안주 평양 등에서 기차검역을 실시하고, 봉천 이북에서 오는 중국인 노동자는 신의주에서 격리하였다. 결빙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강을 건너는 자를 경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안북도 내외의 여러 곳에 여객 검역소를 설치하여 검역을 시행하기도 했다.<sup>75)</sup>

식민당국은 1920년 7월까지 인천, 목포, 군산, 부산, 진남포, 신의주, 용암포, 원산, 청진, 성진 등 해항검역소 10개소 및 임시선박검역소 12개소를 설치하였다.<sup>76)</sup> 이 시설들은 콜레라, 페스트 등 급성전염병의 검역에 사용되었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부산과 인천이 중요한 검역항이었고, 북부지역에서는 만주에서 들어오는 전염병 통로인 신의주와 용암포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들어오는 청진이 중요한 검역항이었다.

만주 페페스트의 주요 경로는 신의주와 청진이었다. 신의주는 북만주에서 오는 페페스트와 남중국에서 오는 선페스트가 안동을 거쳐 한반도로 진입하는 통로였다. 청진은 북만주의 페페스트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한반도로 진입하는 통로였다. 신의주로 들어오는 의심환자를 검역하기 위해 평안북도 각 지역에서 차출된 20명의 경찰관들이 동원되기도 했다.<sup>77)</sup> 1921년 5월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페페스트 환자가 6~7명 발생했는데, 중국 안동지역

75) 『朝鮮衛生事情要覽』(朝鮮總督府, 1922), pp.42-43.

76) 「검역소 증가, 호열자 예방」, 『朝鮮日報』(1920. 7. 16), 4면.

77) 「國境防疫應援, 흑사병 예방으로 平北管内署警官二十名の 응원대가 의주에」, 『東亞日報』(1921. 4. 10), 3면.

에서 온 사람들에게 감염된 것이었다.<sup>78)</sup> 또, 1921년 4월 1일, 블라디보스톡에 입항한 선박 중에서 페스트 환자가 발견된 이래로 환자 가족 등 5명이 페스트로 사망함에 따라, 청진항에도 4월 14일부터 대대적인 검역이 실시되었다.<sup>79)</sup> 1921년 5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한 러시아선박이 청진항에 입항하였는데, 8명의 중국인 페스트 환자가 발각되기도 하였다.<sup>80)</sup>

이와 같이 페스트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은 기차검역, 여객검역(육로검역), 해항검역, 선박검역 등의 검역소 및 격리병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그것들이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었다. 실제로는 위생경찰을 동원한 호구검역이 가장 확실한 검역방안이었다. 이러한 위생경찰에 의한 호구검역은 식민지배를 강화하는 일제의 전형적인 통치방식이 되었다.

일제는 조선병합이래로 경찰헌병 통합제도를 실시하였고, 1919년 조선의 경찰은 6,322명이고, 헌병은 8,179명 등 총 14,501명을 활용하여 치안 및 방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8월 보통경찰제도의 실시에 따라 헌병을 국경경비로 전환시키고, 경찰 2,382명을 증원하여 치안유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1920년에는 경찰 인원이 20,758명까지 증원되었다.<sup>81)</sup>

1916년말 경찰의 총정원은 5,75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전문 위생인력은 기사 3명, 기수 6명, 항무의관 1명, 수의관 1명, 항무의관보 2명, 수의관보 3명 등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밖에 경찰축탁의 25명이 위생업무를 지원하였고, 실제 집행은 순사나 순사보 등 하급 경찰이 담당하였다(정근식, 2011: 237). 1939년 경찰의 총정원은 22,087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전문 위생인력은 기사 13명, 항무의관 1명, 수의관 3명, 기수 112명, 항무의관보 6명, 수의관보 8명, 축탁의 10명, 통역생 17명 등 170명으로 이전에 비해서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전문 위생인력은 소수였다.<sup>82)</sup> 즉 일제하에서 방역행정의 대부분은 전

78) 「鏡城郡에도 흑사병. 6-7명이나 급격히 사망」, 『朝鮮日報』(1921. 5. 18), 3면.

79) 「淸津防疫嚴重, 海山위 흑사병으로」, 『東亞日報』(1921. 4. 22), 3면.

80) 「청진에 入港한 露艦에 鼠軍. 支那人 8명이 흑사병에 걸려」, 『朝鮮日報』(1921. 5. 12), 3면.

81) 『朝鮮警察概要』(朝鮮總督府警務局, 1940), p.25.

82) 『朝鮮警察概要』(朝鮮總督府警務局, 1940), 〈表11〉警察職員定員을 참고.

문 위생인력이 아닌 하급 경찰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1920년 콜레라 방역에서 해항검역을 위해 601명의 경찰, 113명의 의사, 522명의 검역원 등 총 1,242명이 동원되었다.<sup>83)</sup> 경찰은 호구검역, 교통차단, 검변, 사체화장 등 방역행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5. 맺음말

식민지기 조선에서 식민당국이 공식적으로 페스트 환자 및 사망사례를 보고한 바 없었다. 그러나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만주 등지에서 페스트가 빈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스트의 유행 가능성은 상존하였다. 제1차 만주 페페스트가 유행하던 시기 일제의 페스트 방역은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 제 때에 방역을 실시하지도 못했고, 격리기간도 불충분했으며, 페스트의 전염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쥐잡기에 방역역량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전염원인 중국인 계절노동자가 설날 귀향루트로 조선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다.

일제는 제1차 만주 페페스트가 유행하기 이전에 「전염병보고령」(1910. 8. 16)를 통해 페스트를 법정전염병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었고, 실제로 페스트가 유행하자 1911년 1월 중순부터 페스트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 법령을 쏟아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10일간의 검역 혹은 격리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인데, 실제로는 3일 내지 5일 동안 실시되었다. 그밖에 주요한 페스트 방역대책은 쥐잡기에 맞춰져 있었다.

1915년 6월과 7월에 공포된 「전염병예방령」과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은 각 지방 경무부장 책임하에 전염병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10일 동안의 격리기간과 쥐의 구제를 우선적인 조치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강제적인 방역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위생경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19년 3·1

83) 朝鮮總督府, 『大正9年コレラ病虎防疫誌』(京城: 朝鮮總督府, 1921. 4), pp.73-74.



운동의 발발 이후 일제는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통치술의 변화를 꾀하였다. 그 과정에서 헌병과 경찰이 분리되고, 일본인 경찰이 급증하였다. 아울러 지방위생행정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위생행정의 중심이 도지사 관할로 개편되었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을 도 관할로 이관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방역활동에서 위생경찰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1차 만주 페페스트 유행 이후 페스트 관련 법령들은 페스트 환자에 대한 10일 이상의 격리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3일 내지 5일 동안 실시됨으로써 법과 현실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제2차 만주 페페스트 유행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또한 제1차 만주 페페스트 시기에 등장한 방역자위단과 같은 민간조직은 급성전염병의 유행시기에 당국의 방역행정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으로 등장하였으며, 1919~1920년 콜레라 유행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제2차 만주 페페스트 유행에 대한 일제의 방역행정이 달라진 것은 두 가지 점에서였다. 첫째는 호구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것은 1919~1920년 시기에 유행한 콜레라의 방역행정에서 얻은 경험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사망자만 두 해 모두 1만 명 이상이 발생하였다. 콜레라는 페스트와 더불어 외부유입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검역과 격리 등이 매우 중요한 방역정책이었다. 1919년 콜레라는 북방에서, 1920년 콜레라는 남방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식민당국으로서는 전국의 방역시스템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신의주는 페스트와 콜레라가 유입되는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어 각종 검역의 집중적인 관리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방역을 위해서는 해항, 기차, 여객검역보다도 호구검역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었다. 해항, 기차, 여객검역의 성과는 1% 미만이었던 데 비해, 호구검역으로 전염병환자의 60% 내외를 발견해 낼 수 있었다. 호구검역의 이러한 성과는 격리 이외에 별도의 예방조치가 없었던 페스트 방역에서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둘째는 페페스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제1차 만주 페페스트 유행시기에 방역책임자들은 페페스트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페스

트는 선페스트로 동일시되어 폐페스트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쥐잡기를 주요한 방역대책으로 간주하였다. 제2차 만주 폐페스트가 식민지 조선에 전해졌을 때, 이 페스트가 호흡기로 전염될 수 있는 폐페스트라는 사실이 일찍부터 알려졌다. 그러나 제1차 만주 폐페스트 유행시기와 마찬가지로 선페스트의 유행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었다.

폐페스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1921년 4월 「폐페스트 예방심독서」를 통해서 발견된다. 방역당국은 폐페스트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대중에게 폐페스트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심환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였다. 또 폐페스트의 전염원으로 중국인노동자를 지목하고 그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페스트의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제2차 만주 폐페스트 유행시 식민당국이 폐페스트의 호흡기 전염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그 원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분석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은 페스트에 대한 대책으로 더 이상 쥐잡기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제1차 만주 폐페스트 방역이 식민지조선에서 방역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방역성과를 얻어냈다면, 제2차 만주 폐페스트 방역은 방역법령의 정비와 동아시아 각지의 전염병 정보체계의 확립에 기초하여 콜레라 방역행정의 경험과 폐페스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보다 강력한 방역행정을 전개할 수 있었다. 위생경찰과 호구검역을 통한 일제의 방역행정은 식민통치시기 전형적인 통치방식으로 진화해나갔다.

**색인어 :** 만주 폐페스트, 조선총독부, 검역, 위생경찰, 콜레라, 호구검역, 흑사병예방심독

투고일 2012. 10. 04

심사일 2012. 11. 05

게재확정일 2012. 11. 23

## 참고 문헌 REFERENCES

〈사료〉

『警務月報』

『京城新報』

『東亞日報』

『毎日申報』

『朝鮮新報』

『朝鮮日報』

『朝鮮總督府官報』

『朝鮮彙報』

『朝鮮警察之概要』(朝鮮總督府警務局, 1914)

『朝鮮警察概要』(朝鮮總督府警務局, 1940)

『ペスト防疫施設報告書』(其35~其39), 關東都督府臨時防疫部

『明治四十三四年「ペスト」流行誌』(關東都督府臨時防疫部, 1912. 3)

朝鮮總督府, 『大正8年虎列刺病防疫誌』(京城: 朝鮮總督府, 1920. 3)

朝鮮總督府, 『大正9年コレラ病虎防疫誌』(京城: 朝鮮總督府, 1921. 4)

朝鮮總督府警務局, 『朝鮮防疫統計』(朝鮮總督府警務局, 194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41)』(朝鮮總督府, 1943)

『第87-2ペスト豫防の件』(1911. 1. 21), 『南滿洲ペスト一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 海軍省-公文備考-M44-92-1270, p.0231.

*The China Medical Journal*

Wu Lien-teh, "Plague in the Ori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anchurian Outbreaks," *The China Medical Journal* 36, (Jan. 1922)

Wu Lien-teh(G. L. Tuck), "The Second Pneumonic Plague Epidemic in Manchuria, 1920-21. I. A General Survey of the Outbreak and Its Course," *The Journal of Hygiene* Vol. 21, No. 3 (May, 1923)

〈연구서〉

신규환,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살림, 2006)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한울아카데미, 1997)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혜안, 2005)

대한감염학회 편, 『한국전염병사』(군자출판사, 2010)

SIHN Kyu-hwan : The First and the Second Pneumonic Plague in Manchuria and the Preventive Measure of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1910-1921)

焦潤明,『清末東三省鼠疫災難及防疫措施研究』(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1)

飯島涉,『ベストと近代中國』(東京: 研文出版, 2000)

Wu Lien-Teh, *Plague Fighter: The Autobiography of a Modern Chinese Physician* (Cambridge, 1959)

Carl F. Nathan, *Plague Prevention and Politics in Manchuria, 1910~1931* (Cambridge, Mass., 1967)

#### 〈연구논문〉

권기하, 「1910년대 총독부의 위생사업과 식민지 '臣民'의 형성, 연세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1)

박윤재, 「1910년대 初 日帝의 페스트 防疫活動과 朝鮮支配」, 『河炫綱教授定年紀念論叢: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혜안, 2000)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지방 의료정책과 의료소비」, 『역사문제연구』제21호, (2009. 4)

백선례, 「1919 · 20년 식민지 조선의 콜레라 방역활동: 방역당국과 조선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101호 (2011. 3)

정근식, 「식민지 위생경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유산: 식민지 통치성의 시각에서」, 『사회와역사』90, (2011년 여름)

정민재, 「근대 의학 수용에 대한 자주적 노력 - 개항에서 대한제국시기까지」, 『한성사학』21, 2006

金穎穗, 「植民地朝鮮におけるコレラの大流行と防疫對策の変化: 1919年と1920年の流行を中心に」, 『アジア地域文化研究』第8号, (2012. 3).

Park Yun-jae, "Sanitizing Korea: Anti-Cholera Activities of Police in Early Colonial Korea",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3, no.2 (Dec. 2010)

Seon Hsiang-lin Lei, "Sovereignty and the Microscope: Constituting Notifiable Disease and Containing the Manchurian Plague", In Angela Leung and Charlotte Furth, eds., *Health and Hygiene in Chinese East Asia* (Duke University Press, 2010)

Sihn Kyu-hwan, "Unexpected success: the spread of manchurian plague and the response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1910-1911," *Korea journal* vol. 49 no. 2 (Summer, 2009)

-Abstract-

## The First and the Second Pneumonic Plague in Manchuria and the Preventive Measure of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1910-1921)

SIHN Kyu-hwan\*

Dept. of Medical History and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uring the first plague epidemic in Manchuria (1910-1911),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had not reported a plague patient at all in official. This did not mean the preventive measure of colonial authorities was successful. Their prevention program and measure were operated inadequately. They focused on instigative and sometimes irrelevant aspects such as rat removal to restore order in the colony. The quarantine facility was insufficient so that some people could not be effectively isolated. The reason pneumonic plague did not spread from Manchuria to Korea was mostly because Chinese coolie did not enter Korea.

The colonial government promulgated *Jeonyeombyeong Yebangryeong* (Preventive Regulation of Contagious Disease) in June 5, 1915. This regulation aimed at unitary control by police and was strengthened 10-day quarantine.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colonial government tried to change

---

\* Corresponding author: SIHN Kyu-hwan

Dept. of Medical History and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2474/ E-mail: jerryq@yuhs.ac

Received: Oct. 04, 2012; Reviewed: Nov. 05, 2012; Accepted: Nov. 23, 2012

imperial policy to cultural policy. The military police and civilian police were bifurcated and governors took charge of health administration. However, sanitary police still played important role for preventive measure.

The preventive policy of colonial government experienced important change from cholera epidemic between 1919 and 1920. The death toll of two years had exceeded 20,000 people. During the cholera outbreak of two years, quarantine and isolation were emerged as important tools to prevent disease transmission, and were well-appointed more now than before. To prevent cholera epidemic, the colonial government strengthened house-to-house inspection as well as seaport quarantine, train quarantine, passenger quarantine. House-to-house inspection detected sixty percentage of cholera patients.

When the second Manchurian plague spread in Korea in 1920-1921, this plague was known to Korean people as pneumonic plague. The colonial government propagated and educated pneumonic plague, and urged to wear a mask through *Heuksabyeong Yebang Simdeuk* (The Notandum for Plague Prevention).

The colonial government did not focused on rat removal any more. They pointed out Chinese coolie as a source of infection. Though they did not know exact information and analysis on pneumonic plague, the preventive measure of the second plague in Manchuria was successful due to the well-equipped disinfection system such as house-to-house inspection and nationwide quarantine made by cholera prevention.

While the first prevention of plague in Manchuria was successful despite rubbish preventive system, the second prevention of plague in Manchuria was successful due to the well-equipped disinfection system in spite of occurring plague patients.

**Keywords :** pneumonic plague in Manchuria, Japanese Government-General, quarantine, sanitary police, cholera, house-to-house inspection, *Heuksabyeong Yebang Simdeuk*(The Notandum for Plague Prevention)